

중동발 유가 충격에 물가 두달째 2%대 상승

지난달 광주 2.3%·전남 2.7% ↑
채소·과실 등 신선식품지수 하락
전국 2.6% ↑ 21개월만에 최대폭

광주·전남 소비자물가가 두달째 2%대 상승을 이어갔다. 중동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유가가 본격적으로 지역 소비 전반에 충격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호남지방데이터센터가 발표한 '2026년 4월 광주·전남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9.43(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광주 소비자물가는 지난 2월 1.6% 상승한 데 이어 3월(2.0%)보다 0.3%p 상승하면서 5개월 만인

지난해 11월과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 식품과 식품 이외 품목이 각각 0.5%, 4.1%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9.0%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4.5% 상승했지만 신선채소(-20.2%)와 신선과실(-9.0%) 가격이 크게 내리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배추(-33.6%), 국산쇠고기(-4.6%), 양파(-30.7%) 등의 가격이 떨어진 영향이다. 다만 돼지고기(11.3%), 쌀(16.2%), 수입쇠고기(11.9%)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1년 전보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라가면서 3.6% 상승했다.

서비스 물가는 2.2% 상승했다. 보험서비스료

(13.4%)와 공동주택관리비(4.7%), 월세(1.1%), 전세(0.4%) 등이 올랐다.

전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20.66(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 전월(2.1%)보다 0.6%p 상승한 것으로, 지난 2월 1.9% 상승 이후 광주와 마찬가지로 두달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였다.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식품은 1.6%, 식품 이외 품목은 4.7% 각각 올랐다.

신선식품지수는 1년 전보다 4.1% 하락했다. 신선어개는 0.4% 상승했지만 신선채소와 신선과실이 각각 8.1%, 4.4% 하락했다.

다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했다. 국산쇠고기(8.5%)와 돼지고기(7.4%), 쌀(14.1%) 가격이 오르고 배(-33.9%), 배추(-33.9%), 무(-35.1%) 등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공업제품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4% 상승했다. 휘발유(19.6%), 경유(30.2%), 등유(18.7%) 등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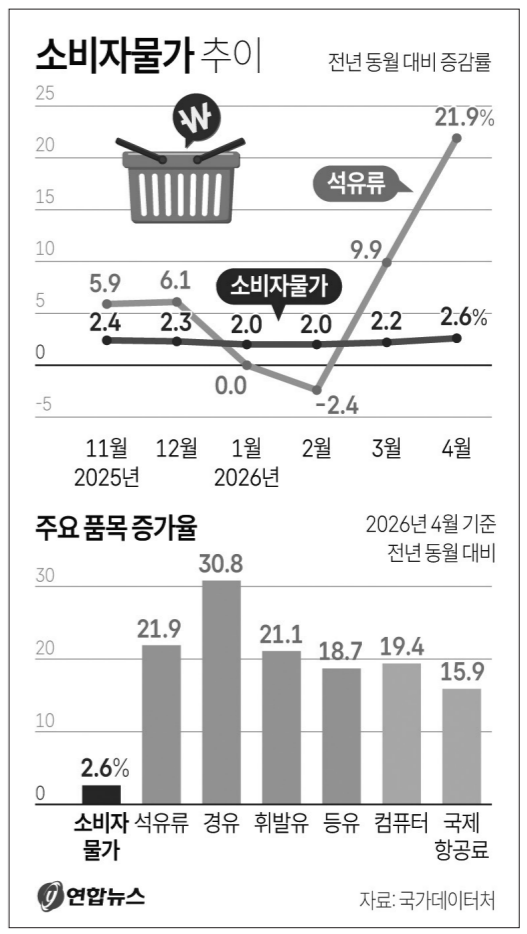
서비스 물가는 보험서비스료(13.4%), 공동주택관리비(5.4%), 등이 오르면서 2.2% 상승했다.

한편 전국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6% 상승했다. 이는 2024년 7월(2.6%) 이후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경유 등 기름값이 크게 상승했지만 석유 최고가격제가 상승세를 일부 억제했다.

전국 농축수산물 중 무(-43.0%), 당근(-42.0%), 양파(-32.0%), 배추(-27.3%) 등 채소류(-12.6%) 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밥상물가는 크게 내렸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광주시는 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광주경찰청, 광주소방안전본부, 각 자치구 교통부서,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어린이안전학교, 광주교통방송, 광주전남기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체'를 출범했다.

자율주행 실증도시 민관협의체 출범

광주시·국토부, 경찰·소방·운수업계·시민단체와 소통
개발-실증-생산-인증 원스톱 지원...시모빌리티 선도

국내 최초로 도시 전역 단위 자율주행 실증사업을 추진 중인 광주시가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광주시는 6일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광주경찰청, 광주소방안전본부, 각 자치구 교통부서, 자동차안전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협회, 녹색어머니연합회, 광주어린이안전학교, 광주교통방송, 광주전남기자협회 등이 참여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자율주행 실증 과정에서 예상되는 시민 안전 문제와 이해관계 충돌 등 다양한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운수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소통 창구로 기능하는 한편, 시민 대상 홍보와 의견 수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내 최초로 광주 전역을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이자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샌드박스'로 지정된 것이 핵심이다.

총 610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자율주행 차량 200대를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투입·운영한다.

국토부는 앞서 현대자동차, 오토모스에이 투지, 라이드플렉스 등 3개 기업을 실증 참여 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국가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의견을 거쳐 광주 전역을 공식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5

일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최고 수준의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AI 자율주행차 메가특구' 구상과 함께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 등 7대 지원 패키지를 발표했다.

광주시는 자율주행 실증도시와 메가특구가 연계될 경우 관련 기업과 스타트업이 집적되면서 기술·부품·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기가 '개발-실증-생산-인증'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국내외 모빌리티 기업이 모여드는 미래차 산업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김영문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자율주행 실증사업은 광주 산업을 AI 기반 모빌리티 혁신 산업으로 전환할 중요한 기회"라면서도 "무엇보다 시민 안전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체가 경찰·소방·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율주행 산업 전환을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지역신용보증재단 법정출연요율 현실화해야"

0.07%→0.05% 환원 연간 1000억 자원 감소 우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을 보증규모와 정책역할에 맞게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대출 위험을 보증기관에 이전하는 대신, 기업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부분을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적용됐던 한시적 인상조치가 종료될 경우, 출연요율이 0.07%에서 0.05%로 환원돼 전국적으로 연간 약 1000억원의 자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타 보증기관 대비 현저히 낮은 출연요율로 인해 출연금 수입 대비 대위변제금 적자가 심화해 정부 부담 가중 및 보증역량 감소 등이 우려된다.

특히 최근 5년간 법정출연금 대비 대위변제 부담이 크게 누적되면서 적자가 심화하고 있지만, 신

용보증재단의 실질적인 수익자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수익은 매년 급증하면서 소위 '털 내고, 더 받는다'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규모는 43조 6000억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다음으로 크지만, 법정 출연요율은 0.07%로,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결국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한 실질적 보증 역량 감소와 정부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은 금리 환경 등의 영향으로 역대급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회사 이익 증가 추세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회사의 출연 여력은 충분하며, 법정출연금을 증액하더라도 금융회사 재정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정책 발표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하한을 0.06%에서 0.1%로 상향 조정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재단은 지역 영세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지원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역시 금융취약계층 지원기관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회사가 재단 법정출연요율 인상에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관계자는 "재단은 지역경제 최일선에서 소상공인 금융안정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보증규모와 정책기능에 걸맞는 수준으로 법정출연요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출연요율 현실화는 단순한 부담 확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증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역경제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시행령 개정과 함께 필요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 보완도 검토해, 재단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0316@gwangnam.co.kr

농어촌공사 나주시사, 물관리 현장설명회

"영농기 안정적 용수 공급·현장 교육 등 안전관리 강화"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시사(지사장 류화열)는 6일 나주배원예농협 대회의실과 대호저수지 일원에서 농업인, 운영대위원, 수리시설감시원, 지자체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물관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농업용수 공급계획과 수리시설 관리방향을 공유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집중호우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 설명회는 기존의 단순 설명 방식에서 벗어나 광주지방기상청 초청 기상정보 활용교육, 농민 체험교육, 안전관리교육, 올해 용수공급 계획 공유를 함께 진행하고, 대호저수지 현장에서 시설물 점검방법 시연과 실습을 병행해 현장 대응

력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나주시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물관리 관계자 간 소통을 강화하고, 영농기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리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사전에 점검했다. 또한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향후 물관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류화열 지사장은 "농업용수 관리는 한 해 농사의 출발점이자 안전영농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변화로 물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형 물관리 체계를 강화해 안정적인 용수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농협 하나로마트, 신임 점장 교육...현장 대응력 강화

호남권 30여명 대상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

농협경제지주 마트사업호남지사는 6일 농협하나로마트 장성물류센터에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신임 점장 30여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하나로마트에 새롭게 부임한 점장들의 운영 실무 능력을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하나로마트 운영관리 전반과 매장 활성화 전략, 현장 사례 중심의 운영 노하우 등 실무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박종근 지사장은 "하나로마트 점장들이 마트 활성화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밀착형

직무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하나로마트의 경쟁력 강화와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마트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호남지사가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트사업호남지사는 2018년부터 '마트 멘토링 지원단'을 운영하며 개점 예정 점포의 초기 인력과 운영 고도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수 점장 14명으로 구성된 지원단은 직무교육과 1대1 현장 컨설팅, 개장 종합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점장들의 만족도와 성과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동곡농협, '풍년 농사' 조생벼 모내기 시동

농작업 대행...추석 전 햅쌀 출하 목표

동곡농협은 최근 광주 광산구 북룡동 일원에서 '2026년 농작업 대행사업 첫 조생벼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과 이동운 동곡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 지역 농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해 고품질 쌀 생산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며 모내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이번 모내기는 동곡농협이 추진 중인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대신해 농업이 직접 이상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영농 부담을 줄이고 적기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특히 이날 식재된 품종은 수확 시기가 빠른 조생벼로, 일반 벼보다 이른 추석 전 햅쌀 출하가 가능해 농가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곡농협은 육묘 공급부터 이앙, 수확까지 이어지는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농업



동곡농협은 최근 광주 광산구 북룡동 일원에서 '2026년 농작업 대행사업 첫 조생벼 모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인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이동운 동곡농협 조합장은 "농작업 대행사업을 통해 첫 모내기를 시작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일손돕기와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조합원의 풍년 농사를 뒷받침하고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